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와 관련 변인

Couple Relationship and Related Variables of Women Immigrants

박지영*

Ji Young Park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couple relationship and related variables of women immigrants. Especially, the study focused on curve term between couple relationship and related variabl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346 women immigrants living in S city, Chungnam province. First, the study indicated that there was some curve relationship between couple satisfaction and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Namely, the couple satisfaction of women immigrants was likely to decrease at the early period of residence, but the longer the period of residence was, the higher the couple satisfaction was. Second, the result reveal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ouple satisfaction and level of Korean proficiency. Third, there was some curve relationship between coupl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f life. The couple satisfaction was likely to increase in a shape of curv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life satisfaction.

주요어(key words) : 부부관계 만족도(couple satisfaction), 곡선관계(curve term), 여성결혼이민자(women immigrant), 삶의 만족(satisfaction of life), 한국어 능력(Korean proficiency)

* 고구려대학 차문화복지과,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e-mail: teawel@kgrc.ac.kr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중 여성 결혼이민자는 2009년 5월 현재 167,090명, 이들의 자녀는 108,484(남: 52,842, 여: 50,642)명에 달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 2009), 지방이나 농촌에서는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다문화 가족을 이루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결혼을 전제로 한 이민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결혼을 한 사람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는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남편 배우자를 만나고, 새로운 언어, 생활양식, 관습, 음식, 기후, 지리, 제도 등 모두 새로운 것과의 만남을 경험한다. 그 중에서 남편과의 만남은 가장 1차적이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과정이 남다른 점은 5박 6일을 넘지 않는 시간 안에 맞선부터 결혼식, 합방까지 모두 이루어진다(한건수, 설동훈, 2006)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결혼 초기에 결혼의 질이나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동질혼적 요소, 공감능력, 결혼전 교제기간, 부부체계의 경계 유지, 역할 호혜성 등(Jorgensen, 1986)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는 이러한 관련 변인들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결혼이 이루어진다. 단지 주로 경제적 동기¹⁾가 결혼의 주요한 이유로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관련 변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동안 결혼만족도나 결혼의 질, 부부관계 만족

1) 보건복지부(2005)의 조사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동기 중 약 40%가 경제적인 이유에서 국제결혼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도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반적인 결혼과 다른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예컨대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 적응 요인(송지현, 2009; 소은덕,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한건수, 2006; 김오남,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 만족과 질, 부부관계 만족(서해정, 2007; 장지연, 2009; 이지혜, 2007; 김인철, 2008; 최경숙, 2006; 강순정,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박재규, 200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김연수, 2010) 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하게 평균차이 검증 또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인간 관계를 파악하여 단면적 정보를 제시하는데 그쳤다. 특히, 결혼기간이 부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결혼기간에 따라 U자형을 그린다는 연구(정현숙, 1996; Lewis & Spanier, 1979) 결과를 검토해 볼 때 관련 변인간 선형적(linear) 관계를 넘어 곡선적(curvilinear) 관계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생활 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한국어 능력(장은정, 2007)과 여성 결혼이민자는 경제적 욕구가 강하다는 점(보건복지부, 2005) 등을 판단할 때 삶의 만족과의 관련성에 대한 경향 파악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적 및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가 한국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그리고 삶의 만족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특히, 종속변인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가 한국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그리고 삶의

만족과의 직선적(linear) 및 곡선적(curve) 관계의 설명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만일 설명력에 차이가 있다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는 한국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그리고 삶의 만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문제로 설정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념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실천적, 제도적으로 적합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어(서해정, 2007) 매우 중요하다. 먼저 결혼이민자의 개념을 법적으로 보면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2항에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1항)로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결혼이민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결혼이민자는 국적의 취득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인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여성이고, 한국인과 혼인관계에 있고, 이민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법적인 해석의 모든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정책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라는 범주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와 경제적 동기를 이유로 한국남자와 결혼하면서 이주한 여성들로 상징적으로 구상된다(정선애, 2007)는 생각을 본 연구에서 받아들기로 한다.

2.2.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개인과 가족의 안녕에 중심적인 역할(Stack & Eshleman, 1998)을 할 뿐만 아니라 결혼해체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Bradbury, Fincham & Beach, 2000)이다.

학자들은 부부관계 만족도, 결혼만족도, 결혼의 질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서해정, 2007; Lewis & Spanier, 1979). 먼저 결혼의 질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보면 결혼만족도는 기대와 실제의 차이로 보는 관점과 결혼당사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의 차원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기대와 실제의 차이로 보는 관점에서는 결혼만족도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의 일치 정도라고 정의한다(Lewis & Spanier, 1979). 결혼당사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의 차원에서는 결혼만족도는 현재의 결혼의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자신이 경험하는 행복, 만족, 즐거움이라는 주관적 감정(Hawkins, 1968)이라고 정의하며,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이라는 연속선상에 있는 태도변수로 본다. Burgess와 Locke(1945)도 같은 맥락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만족하는가에서부터 불만족하는가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태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만족도를 여성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태도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서해정(2007)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이 결혼안정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 결혼이민자

는 결혼의 질보다 안정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남편과의 결혼만족은 3.52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이지혜, 2007). 한편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1/3정도가 이혼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박재규, 2007),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족과 부부간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건수, 2006). 본 논문은 한국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그리고 삶의 만족의 변화에 따른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의 변화를 다른 논문과 차별하여 다루려고 한다.

2.3.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와 관련 변인

2.3.1. 한국거주기간

본 연구에서 결혼지속기간보다는 한국거주기간을 사용한 것은 한국에서의 적응에 대한 시간적 개념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그렇다고 결혼지속기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 입국 후 바로 결혼생활에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부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결혼기간에 따라 U자형을 그린다는 연구(정현숙, 1996; Lewis & Spanier, 1979)와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서광희, 조병은, 1993; 이정은, 이영호, 2000; Glenn, 1998)가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지혜(2007)의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낮았으나 최경숙(2006)은 결혼지속기간을 6개월-3년 미만, 3-7년 미만, 7-10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강순정(2008)도 결혼만족은 지속기간

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가장 힘든 시기는 초기 6개월로 나타났으며(74%),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음식이나 기후 등 물리적 여건보다 사고방식이나 가족의 태도 등 정신적인 부분이 더 적응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8) 부부관계 또한 낮아지거나 변동이 없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결혼기간에 따라 결혼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서해정(2007)은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의 질은 15년 이상이 평균 3.24점으로 결혼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1-3년 이하가 평균 3.22점이었고, 6개월 이하 결혼 생활을 지속한 집단이 가장 낮은 결혼의 질을 보였다.

부부갈등이나 이혼의사도 결혼기간과의 관련성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였는데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기간이 오래일수록 부부갈등은 높게 나타났다(김오남, 2006)는 결과와 거주기간과 이혼의사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박재규, 2007).

2.3.2. 한국어 능력

다문화가정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언어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 성격을 의미한다. 즉,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상호간의 말에 대한 의미전달 이상의 관계형성과 문화적 이해까지 포함하는 맥락으로 해석되며, 이것은 결혼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장은정, 2007).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송지현, 2009).

한국어 능력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제결혼 부부가 한국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이지혜, 2007). 김인철(2008)은 의사소통 및 남편의 아내 모국에 대한 문화 이해 노력 정도

가 결혼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한국어 구사 능력은 가족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어 능력은 부부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은 편이다(박재규, 2006; 이지혜, 2007; 서해정, 2007; 박정숙 외, 2007; 김오남, 2005; 양순미, 2006). 그러나 최경숙(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김오남, 2006; 한건수, 2006). 이혼의사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높은 여성에 비해 낮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박재규, 2007). 한편 김연수(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이 부부갈등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3. 삶의 만족

삶의 만족 또는 생활만족은 각기 비중을 달리하는 다양한 삶의 구체적 영역 속에서 느끼는 만족의 합(Cummins, 1996; Rojas, 2006)이다. 또한 생활만족은 현재 생활을 구성하는 각종 활동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의 정도, 기대했던 것과 현실간의 일치정도,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여 정서, 사회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소광섭, 2007; 최성재, 1986; Cohen, 1985)

삶의 만족과 부부관계를 연구한 결과는 없지만 소득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의 증가는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서해정(2007)의 연구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연평균 소득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권복순, 차보현, 2006). 그러한 이유는 보건복지부(2005)의 조사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동기 중 약 40%가 경제적인 이유에서 국제결혼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점과의 관련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한·일 국제결혼한 부부의 경우 가정소득이 낮을수록 공격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한주연, 2002), 필리핀 여성과 호주 남성간 결혼에서 재정적 요인은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을 하는 것으로(Ang, 1995), 부부갈등은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그 이하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김오남, 2006).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결혼이민자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이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재규, 2007).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충남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산시²⁾ 여성 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태조사는 서산시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등록자)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은 8개 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원이 직접 다문화 가족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배부, 여성 결혼이민자가 직접 기재한 설문지를 바로 회수하는 방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2009년 8-9월에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지역인 서산시 총인구는 161,238명, 세대 수는 62,721세대, 이중 내국인 159,243명(98.8%), 외국인 2,421명(2.2%)이다(서산시,

2) 서산시는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농촌인 읍·면에 거주함.

2010). 또한 다문화가족은 276가족(등록)이며,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349명이다(서산시, 2009).

연구대상은 서산시 여성 결혼이민자 346명이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의 37.2%는 중국 조선족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29.0%, 필리핀 11.1%, 태국 5.6%순이었다. 연령은 평균 32.94세였으며, 이 중 20대가 46.2%로 가장 많았고, 30대 31.5%, 40대 14.7%순이었으며, 60대는 1.4%(5명)로 가장 적었다. 교육수준은 31.5%가 고등학교 졸업이었으며, 중학교 졸업 28.4%, 대학 졸업 22.6%로 나타났고, 대학원 졸업도 1.4%에 이르러 학력에서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평균 한국거주기간은 4.57년 이었으며, 1년 이상 5년 미만 거주기간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가 5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자가 19.7%로 많았다. 국적취득은 71.4%가 미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국적	중국(조선족)	127	37.2	연령 (평균=32.94세)	20대	160	46.2
	중국(한족, 기타)	24	7.0		30대	109	31.5
	베트남	99	29.0		40대	51	14.7
	필리핀	38	11.1		50대	21	6.1
	일본	12	3.5		60대	5	1.4
	대만	2	.6		합계	346	100.0
	몽골	10	2.9	교육수준	무학	2	.6
	태국	19	5.6		초등	34	9.9
	캄보디아	5	1.5		중등	98	28.4
	우즈베키스탄	2	.6		고등	128	37.1

국적	기타	3	.9	교육수준	대학	78	22.6	
	합계	341	100.0		대학원	5	1.4	
한국거주기간 (평균=4.57년)	1년 미만	34	9.8	국적취득 여부	합계	345	100.0	
	1년 이상-5년 미만	194	56.1		취득	99	28.6	
	5년 이상-10년 미만	68	19.7		미취득	합계	247	71.4
	10년 이상-15년 미만	45	13.0					
	15년 이상	5	1.4					
	합계	346	100.0				346	100.0

3.2. 조사도구

부부관계와 삶의 만족은 단 문항으로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어 능력은 Ataca와 Berry(2002)의 언어능숙함 척도력(이해하기, 읽기, 말하기, 쓰기)을 참고하였으며, 이중 이해하기를 제외한 읽기, 말하기, 쓰기의 3개 하위영역을 매우 서툴다부터 매우 잘한다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결혼이민자의 국적, 연령, 교육수준, 한국국적 취득여부, 한국거주기간을 단답 또는 선택형 문항을 주로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3.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Win.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척도에 대한 기초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적용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와 한국거주기간, 한국어능력,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파악을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종속변인과 독립변인과의 관계 파악을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의 곡선 추정(curve estimat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가 한국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그리고 삶의 만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기초 분석

주요변인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 변인 모두 최소값이 1 점, 최대값 5점으로 나타났고, 부부관계는 평균 4.0087점으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이었으며, 한국어 능력은 평균 3.1127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만족은 평균 3.7907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초분석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부관계	1	5	4.0087	1.0245
한국어능력	1	5	3.1127	1.0081
삶의 만족	1	5	3.7907	.9733

4.2.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 따른 부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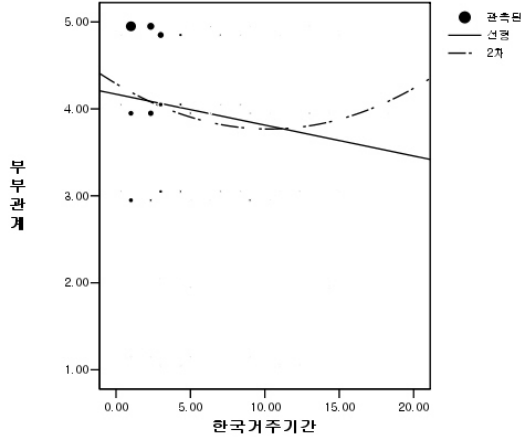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가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

이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형적 관계(linear term)와 곡선적 관계(quadratic term)를 알아보는 단순회귀분석의 곡선추정을 실시한 후 두 관계의 설명력(R^2)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선형적 관계는 1.9%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나 곡선적 관계는 2.4%의 설명력을 나타내 곡선적 관계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부부관계를 보다 잘 설명해주었다. 한편 <그림 1>에서 보면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0년 정도 경과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이후 점차 증가하는 U자형 분포를 보였다.

<표 3>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부부관계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Method	R^2	d.f.	F	Sig.
Linear	.01859	341	6.45782	.0115
Quadratic	.02372	340	4.03855	.0168

한편 <그림 1>에서 보면 거주기간이 5-10년인 여성 결혼이민자와 5년 미만 및 15년 이상인 여성 결혼이민자간에 부부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어 이를 검증하고자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거주기간이 5-15년인 여성 결혼이민자와 5년 미만 및 15년 이상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이 5-15년인 경우가 5년 미만 및 15년 이상인 경우보다 낮았다.



〈그림 1〉 한국거주기간과 부부관계

〈표 4〉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부부관계에 대한 t-test

	한국거주	N	평균	표준편차	t값
부부관계	5-15년	115	3.8348	1.03390	-2.247*
	0-4.9년-15.1년 이상	228	4.0965	1.01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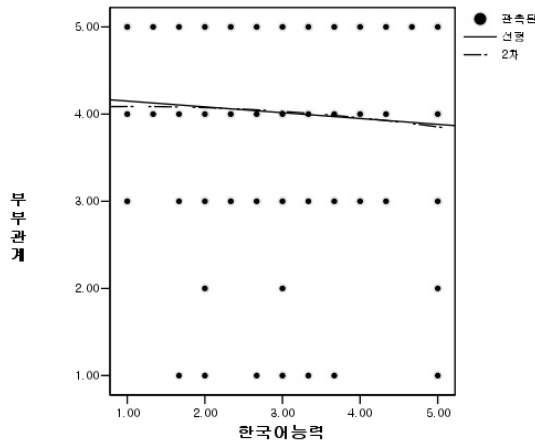
4.3.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에 따른 부부관계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가 한국어능력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형적 관계(linear term)와 곡선적 관계(quadratic term)를 파악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에 따른 부부관계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Method	R ²	d.f.	F	Sig.
Linear	.00434	341	1.48487	.2239
Quadratic	.00469	340	.80171	.4494

〈그림 2〉에서도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한국어능력의 변화에 따라 만족도 평균 약 4점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능력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한국어능력과 부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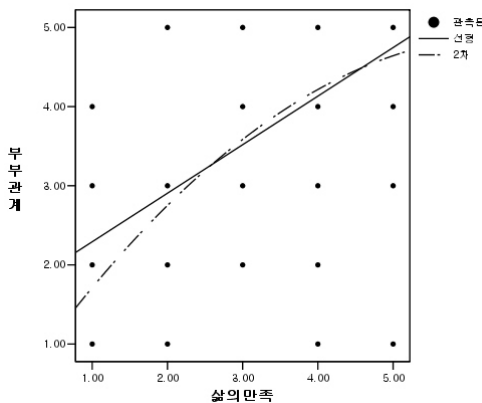
4.4.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따른 부부관계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가 삶의 만족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적 관계(linear term)와 곡선적 관계

(quadratic term)를 파악하는 단순회귀분석의 곡선추정을 실시한 후 두 관계의 설명력(R^2)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선형적 관계는 34.2%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나 곡선적 관계는 35.8%의 설명력을 나타내 곡선적 관계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따른 부부관계를 더 잘 설명해 주었다. 한편 <그림 3>에서 보면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 불만과 보통의 중간점(2.5점)까지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2.5-4.5점)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4.5점 이후)부터는 기울기가 보다 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는 삶의 만족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곡선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따른 부부관계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Method	R^2	d.f.	F	Sig.
Linear	.34225	339	176.39726	.0000
Quadratic	.35775	338	94.13922	.0000



<그림 3> 삶의 만족과 부부관계

한편 삶의 만족으로 3집단 즉 불만, 보통, 만족으로 구분하여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는 삶에 만족하는 집단이 보통이라는 집단보다 높았고, 보통이라는 집단이 불만이라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표 7> 삶의 만족에 따른 부부관계의 분산분석

구분	N	M	SD	F	Duncan
불만	18	2.0556	1.21133	76.702***	불만<보통 <만족
보통	125	3.6720	.77017		
만족	198	4.3889	.86399		
합계	341	4.0029	1.02469		

***p<.001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는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직선적 관계 보다는 곡선적 관계가 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관계 만족도가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0년 정도 경과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이후 점차 증가하는 U자형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결혼기간에 따라 U자형을 그린다는

연구(정현숙, 1996; Lewis & Spanier, 1979)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의 질은 15년 이상이 평균 3.24점으로 결혼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1-3년 이하가 평균 3.22점이었고, 6개월 이하 결혼 생활을 지속한 집단이 가장 낮은 결혼의 질을 보인 연구(서해정, 200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 부부의 경우 부부관계는 결혼 초기에 동질혼적 요소, 공감능력, 결혼전 교체기간, 부부체계의 경계 유지, 역할 호혜성 등(Jorgensen, 1986)의 요인이 작용하여 부부관계 만족이 증가하나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다른 변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의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열망이 결혼 초기에 부부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여성 결혼이민자는 다른 부부들과 비교하게 되고, 새로운 동기가 발생하면서 부부관계는 점차 감소하다가 다시 한국거주기간이 15년 정도 지나면서 점차 부부간에 적응을 잘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정당화하면서 부부관계 만족도가 향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는 한국어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박재규, 2006; 이지혜, 2007; 서해정, 2007; 박정숙 외, 2007; 김오남, 2005; 양순미, 2006)에서 한국어 능력은 부부관계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었다. 그러나 한국어능력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최경숙(2006)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커뮤니케이션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단순히 한국어 능력만으로 부부관계의 만족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다소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다른 연구에서도 부부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정도를 측정한다면 일관성있는 연구의 결과가 예상될 것이다.

셋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는 선형적 관계보다는 곡선적 관계가 보다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따라 부부

관계 만족도가 삶의 만족이 불만과 보통의 중간점(2.5점)까지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2.5-4.5점)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4.5점 이후)부터는 기울기가 보다 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는 삶의 만족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곡선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분적으로 소득에 따라 부부관계가 만족한다는 서해정(2007), 권복순, 차보현(2006)의 연구 등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높은 수입은 물질적 보상과 사회적 명예, 위세 등의 상징적 보상을 제공하게 되므로(최규련, 1984) 부부관계의 만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데이터는 한 시단위의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민자로부터 수집하였다. 데이터가 농촌과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결론을 전국에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샘플링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이해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순한 척도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부관계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 등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위해서는 한국어로 된 척도를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하고 타당화한 척도의 개발이 요청된다.

셋째, 국제결혼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어려움은 이민을 와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더 크겠지만 한국인 남편 역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순정.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오남.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연수. (2010). 가족탄력성 접근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59-90.
-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217-252.
- 김인철.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수 외.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1.
-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사회*, 17(2), 75-105.
- 박재규. (2006). 국제 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 전북지역 사례-. *농촌경제*, 29(3), 67-84.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 설동훈, 윤희식. (2005). 국내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10, 247-265.
- 서광희, 조병은. (1993). 농촌부부의 배우자 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1), 97-120.
- 서산시. (2010). *서산시 통계*. 서산시청 홈페이지.
- 서산시. (2009). *맞춤형 복지발전 5개년 계획*. 내부자료.
- 서해정.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소광섭. (2007). 도농복합도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인복지*

지학, 38, 7-30.

- 소은덕.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연. (2009). 다문화 가정 부부의 결혼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 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지혜.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지연. (2009). 결혼이민자 여성의 결혼만족과 양육스트레스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애. (2007). 일하고 싶은 결혼이주여성, 현모양처가 좋은 이주여성 정책. 한국여성인권센터 2007 정기심포지움.
- 정현숙. (1996).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51-60.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8). *충남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실태조사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개발. 2008-03 기본연구과제.*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 73-106.
- 최경숙.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 (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건수, 설동훈. (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한주연. (2002). 한·일 국제결혼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 (2009). 내부자료.

- Ang, M. A. (1995). The Filipino settlement experience in Australia, *Asian Migrant*, 8(2). 42-46.
- Ataca, B. & Berry, W. J. (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Bran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of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64-890.
- Cohen, S. & Willi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ummins, R. A. (1996). The domains of life satisfaction: An attempt to order chao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8, 303-332.
- Glenn, N. D. (1998). The course of marital success and failure in five American 10-year marriage cohort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50, 83-95.
- Hawkins, J. L. (1968). Associations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647-650.
- Lewis, T., & Spanier, G.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Burr, R. Hill, F. Nye, & I.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 Press.
- Rojas, M. (2006).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in domain of life: Is it a simple relationship?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467-497.
- Stack, S., & Eshleman, J. R. (1998). Marital status and happiness: a 17-nation-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527-536.

논문투고일: 2010. 4. 24

1차수정일: 2010. 6. 8

게재확정일: 2010. 6. 18